

매화마을에서 봄맞이... 지역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광양시, 매화축제 계획안 의견수렴 보고회... 3월7~16일 열흘간 개최 지구마블 여행·매실 힐링 테라피 등 신규 콘텐츠 도입...포토존 설치도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한국의 봄, 매화마을에서 열다'를 주제로 올해 3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개최된다.

광양시는 대한민국의 새봄을 알리는 전령이자 매년 많은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는 광양매화축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지난 13일 광양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관계부서장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광양매화축제 기본계획(안) 의견수렴 보고회가 열렸다.

이번 보고회는 정인화 시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김미란 관광과장의 기본계획(안) 및 총괄 보고, 관련 의견수렴, 행정지원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광양매화축제가 전라남도 대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문화축제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그간 확인된 문제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기본계획안에 의하면 이번 광양매화축제는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해 상생과 지속가능성을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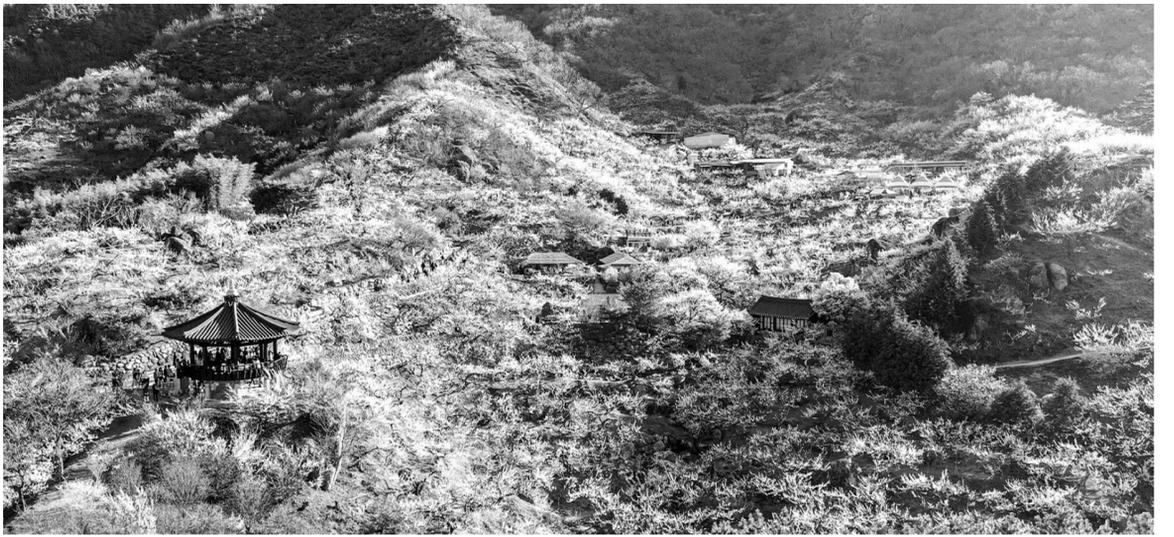
화할 방침이다.

또한, 광양매화마을이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데 따른 한국관광 100선 탐방 이벤트, 지구마블 광양여행, 매실 힐링 테라피 등 참신하고 독특한 신규 콘텐츠를 도입하고 아름다운 광양매화마을을 배경으로 추억의 인생샷을 남길 수 있도록 매들이 대형 공기 조형물 등을 활용한 포토존을 축제장 곳곳에 설치할 계획이다.

입장료는 500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징수한 입장료는 축제 상품권으로 전액 환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제 상품권 사용처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축제장 내 버스, 다압면 소재 점포, 중마시장, 광양수산물유통센터 등 시에서 설치한 점포로 한정한다.

이와 함께 즐겁고 쾌적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노점상과 야시장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상황 실시간 안내와 화장실 추가설치 등을 통해 방문객 만족도 제고에 힘쓸 예정이다.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종합 안전 관리 본부' 또한 축제 기간에 운영된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광양매화축제는 대한민국



광양 매화마을 전경.

봄의 서막을 여는 축제가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인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그동안 노출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더욱 새로운 모습을 선보여 재방문율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고질적인 교통체증 해소와 차별화된 콘텐츠 제공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품격 있는 축제,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어

야 한다. 전남 대표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광양매화축제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광양사랑상품권 800억으로 확대 발행 시, 소비 촉진 위해 300억 추가...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총력

광양시는 당초에 5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었던 '광양사랑상품권'을 300억원 추가 발행해 8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양시에 따르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 심리가 위축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커져 소비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침체된 지역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300억원 추가 발행을 결정하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를 소비 촉진 기간으로 정했다.

광양사랑상품권 300억원 확대 발행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대비 같은 소식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행한 700억원 규모의 광양사랑상품권이 시민들

에게 큰 인기를 끌며 조기 소진됐고, 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며 소상공인 매출액 증가로 이어진 만큼 올해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광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1달간 사용한 금액의 15%를 후개시백 방식으로 지급하는 소비 진작 이벤트를 추진 중이다.

정해중 광양시 투자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위한 정책발굴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3800명 대상 노인일자리아업 추진 공익활동 등 4개 사업 안정적 노후생활·사회참여 기회 확대

순천시가 어르신 3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노인 일자리아업을 본격 추진한다.

노인일자리아업은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순천시 노인일자리아업은 ▲노인공익활동 33개 사업 3115명 ▲공동체사업단 9개 사업 190명 ▲노인역량활용 11개 사업 380명 ▲취업알

선형 1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아업에 선정된 어르신들은 순천시를 포함해 (사)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 순천시니어클럽, 조례노인복지관, 린제노인복지관, (사)순천 YWCA에서 운영되는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노인일자리아 참여자 안전을 고려해 사업 시작 전에 안전 및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곡성군, 정보공개 '최우수' 총점 94.78점...전국 군단위 평균보다 8.8점 높아

곡성군이 행정안전부의 2024년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정보공개활을 활성화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554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2024년 정보공개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정보공개 청구 처리·고객관리·제도운영 등 총 5개 분야의 정보공개 운영 전반에 대해 이뤄졌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수준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평가에서 곡성군은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

를 받아 전국 군단위 평균(85.96점)보다 8.82점이 높은 총점 94.78점을 획득해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에서는 곡성군을 포함해 4개 군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로써 곡성군은 2023년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지난해 한 단계 더 높은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정보공개 행정의 신뢰도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앞으로도 '새로운 곡성 희망찬 군민'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성 기자 bigkim2@kwangju.co.kr

고흥 민원 해결사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민원서류 배달 등 호평

고흥군은 우체국과 마을이장이 함께 추진 중인 '행복배달 빨간자전거'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위험사항을 보다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군은 집배원과 마을이장이 주민의 생활불편과

위험사항 등을 제보하면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주민 일상생활 불편과 위험사항 제보 처리 ▲취약계층 생활실태 파악 제보(복지서비스 연동) ▲거동불편 대상자 민원서류 배달 등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이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만큼 더욱 촘촘하고 신속한 생활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자중 기자 gju@kwangju.co.kr

여수에 동부권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순천 등 7개 시·군 관할...7월부터 종합 상담창구·직업교육 운영

여수시가 '전남 동부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유치를 확정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방 소멸 극복과 외국인 주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영암군에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동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후보지를 물색했다.

이에 여수시는 지난해 부시장 직속 부서로 청년 인구 정책관을 신설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운영 장소를 협의하는 등 유치에 공을 들였으며, 최종 확

정됐다.

전남 동부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는 여수상공회의소 내에 설치돼 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등 7개 시군을 관할한다.

▲종합 상담창구 운영 ▲한국어 및 직업교육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사회통합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 사업 등의 외국인 주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다음 달 4일까지 전남 동부 이민 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 후 2월

중 심사를 거쳐 선정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외국인 주민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산업, 농어업 현장에는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여수상공회의소의 장소 제공 등 민관이 협력해 이뤄낸 큰 성과"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가운데 여수시에는 외국인 주민 1만 5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도내에서 영암군에 이어 2번째로 많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보성 득량면 취약계층 어르신 찾아 안부 꾸러미

100가구에 라면·양말 등 식료품·생필품 등 전달

보성군 득량면희망드림협의회와 복지기동대, 보성지역자활센터 생활관리사가 지난 14일 득량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동절기 안부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안부꾸러미는 득량면민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득량면희망드림협의회 연합모금 계좌)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부하는 모금액에서 사업비를 배분받아 추진됐다.

안부꾸러미에는 어르신들의 영양과 필요를 고려해 사골국물, 라면, 수면양말, 바르는 상처 연고제 등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봉사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고 안부를 살폈다.

박학재 득량면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홀로



보성군은 지난 14일 득량면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100가구에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구성된 '안부꾸러미'를 전달했다. (보성군 제공)

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십시일반의 기부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마음을 나눠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은 득량면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베트남 계절 근로자 유치 구례군-화방군 업무 협약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

구례군이 지난 16일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을 통해 구례군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번기 인력난에 시달리는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을 공급하고, 베트남 근로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구례군은 베트남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적합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농가 간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 및 지



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례군과 화방군 간의 이번 협력은 단순히 인력난 해결을 넘어, 양 지역 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문화 교류를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협약은 구례군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지역의 상생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